■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47-176.
http://doi.org/10.17948/kcs.2023..98.147

신라 사찰 출토 금속공예의 종류와 제작시기*

이용진(李溶振)**

목 차

1. 머리말
2. 신라의 사찰 현황과 사찰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
3. 신라 사찰 출토 불교공예품의 종류와 제작시기
4.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이후 935년까지 신라의 왕경과 지방에는 500개 이상의 사찰이 건립되었다. 신라의 사찰에서는 승려들의 출가부터 입적 때까지 의례와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수많은 금속공예품들을 제작,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500개 이상의 사찰이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사찰터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금속공예품만이 출토되었고, 용도에 따라 공양구, 범음구, 장식구, 일상생활용구, 인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양구에는 향로와 정병, 광명대와 촉대 등이 있었고, 범음구에는 청동금고, 장식구에는 금동투조장식구와 보당, 귀꽂, 용과 봉황장식 등이 있었다. 일상생활용품은 자물쇠와 청동기명, 옷걸이 등이 있었으며 사찰의 행정과 관련된 청동인장도 출토되었다.

신라의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들은 신라 중대와 하대의 것들이 대부분이고, 왕경에서 지방으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신라 사찰의 건립이 중대에서 하대로 가면서 왕경보다는 지방에 많이 건립되었기 때문이고, 8세기에서 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공양구는 남종선의 전래와 관련하여 사자진병향로와

* 이 글은 2022년 9월 22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한 〈신라 사찰의 건축기술과 생활문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정병이 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었고, 지방에서 왕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장식구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동투조장식구의 경우 월지를 비롯해 황룡사지, 인왕동사지, 창녕 말흘리사지, 삼척 흥전리사지까지 투조기법으로 만든 금동장식구가 9세기말 1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용구도 왕경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동기명은 월지와 황룡사, 인왕동사지 출토품과 사찰터 출토품은 아니지만, 황해도 평산과 부여 부소산 출토품이 유사한 모습이어서 왕경의 기명이 9세기에 지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은 고려시대 불교공예품의 원류가 되는 것이 많은데, 사자진병향로, 정병, 청동금고, 청동기명, 보당 등은 신라의 전통이 고려에 계승되고, 신라적인 전통은 12세기를 기점으로 고려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신라사찰, 왕경, 금속공예품, 공양구, 범음구, 장식구, 일상생활용구.

1. 머리말

'寺寺星張 塔塔雁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었다. 지금도 경주 황룡사지 주변에는 분황사를 비롯해 미탄사지 등 크고 작은 사찰터가 남아있어 번성했던 신라 사찰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이후 멸망 때까지 신라에 있던 사찰의 수는 500여개, 경주에는 200개 이상의 사찰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1] 신라의 사찰은 경주를 중심에서 점차 확대되어 신라 하대에는 지방에도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지방의 사찰들은 왕조의 교체, 외침 등으로 다수의 사찰이 폐사되었고, 사찰터만 남은 곳이 많이 있다. 이처럼 번성했던 신라 사찰에 대한 조사는 1902년 일본인 학자들의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의 주체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학자,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였고, 해방 후에는 국가기관과 대학교, 발굴법인 등이 주도하였다.

---

1) 이인철・진성규, 『신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003, 258면; 박방룡, 「신라 도성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7, 133-161면.

신라의 사찰 조사에서는 가람 규모와 배치, 변화, 의례와 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 의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고, 출토 유물 중에는 사찰의 의례 및 생활과 관련된 금속공예품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금속공예품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의례와 관련된 공양구와 범음구, 장엄구, 일상생활용구 등이 출토되었고, 사찰의 행정과 관련된 인장 등도 출토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주와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기존에는 발견된 적이 없던 새로운 금속공예품들이 출토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2]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라의 사찰터 조사에서 발견된 금속공예품 중 사리장엄구를 제외한 금속공예품을 용도에 따라 공양구와 범음구, 장엄구, 일상생활용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경주지역 출토품과 지방 출토품을 비교하면서 제작시기와 확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라의 사찰 현황과 사찰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

1) 신라 왕경과 지방의 사찰 현황

신라의 불교 공인 후 왕경에는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왕경의 주요 사찰은 興輪寺, 永興寺, 皇龍寺 등 『三國遺事』에 기록한 소위 七處伽藍과 四天王寺, 奉聖寺, 感恩寺, 奉恩寺 등 7개의 成典寺院이 알려져 있다.[3] 칠처가람과 성전사원 이외에도 신라 중대에는 황복사, 천관사, 망덕사, 인용사, 굴불사, 불국사 등의 사찰이 왕경에 건립되었고, 지방에도 사찰 건립이 활발하였다. 신라 하대에는 왕실과 귀족의 원찰인 무장사, 숭복사, 원원사, 창림사 등이 경주 지역에 건립되었고, 지방에는 해인사, 범어사, 청량사 등의 화엄종 계통의 사찰과 선종 사찰들의 창건이 활발하였다.[4]

---

2) 2000년대 이후 신라 사찰터의 시발굴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금속공예품들이 출토되었다. 경주 지역에서는 황용동 황용사지에서 장엄구와 생활용품이 출토되었고,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군위 인각사에서 금동사자진병향로와 청동정병, 청동향합, 청동금고 등이 출토되었고, 삼척 흥전리 사지에는 청동인장과 사자진병향로의 사자, 청동정병 등이 출토되었다.

3)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2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116면.

4) 김복순, 앞의 글, 120-122면.

신라의 사찰은 불교 공인 후부터 진덕여왕대까지 45개의 사찰이 창건되었고, 이 중 38개가 경주지역에 건립되었다. 신라 중대의 사찰은 문헌상 73개의 사찰 중 33개가 지방에 건립되었고, 문헌에는 없으나 불상이나 탑이 남아있는 곳을 합하면 210여개의 사찰이 왕경을 포함해 전국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5] 신라 하대에는 문헌과 금석문을 통해 96개의 사찰이 확인되는데, 이 중 79개는 지방에 건립되었으며, 문헌에는 없지만 불상과 탑이 남아있는 곳을 합하면 189개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 이처럼 불교 공인 이후 신라의 사찰은 왕경을 중심으로 건립되다 중대와 하대를 지나면서 점차 지방을 중심으로 건립되어 신라에는 500여 개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왕경에는 200여 개 이상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석문을 포함한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왕경의 사찰은 106개[7] 정도이고, 경주 남산의 불적 일부를 포함한 경주 지역의 사찰터는 79개소로 파악된다. 이 중 사찰명이 확인되는 사찰터는 27개, 탑이 남아있는 사찰터는 31개, 불상이 남아있는 사찰터는 18개, 기타 3개이다.[8] 신라의 사찰 중 왕경의

---

5) 이인철・진성규, 앞의 책, 261-262면.

6) 이인철・진성규, 앞의 책, 263-264면.

7) 김동하, 「신라사찰의 분포와 왕경의 형성」, 『신라문화』 57, 2020, 106면. 김동하는 박방룡, 이인철, 김복순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106개 사찰로 언급하였다. 106개의 사찰은 다음과 같다. 1. 감산사, 2. 감은사, 3. 경지사, 4. 고선사, 5. 곡사, 6. 곤원사, 7. 구원사, 8. 굴불사, 9. 금강사, 10. 금곡사, 11. 금광사, 12. 기림사, 13. 기원사, 14. 남간사, 15. 남산(지)사, 16. 남항사, 17. 담암사, 18. 대곡사, 19. 도량사, 20. 도림사, 21. 도중사, 22. 돌백사, 23. 동천사, 24. 만선도량, 25. 망덕사, 26. 문수사, 27. 모지사, 28. 무장사, 29. 미탄사, 30. 민장사, 31. 밀곡사, 32. 반량사, 33. 백률사, 34. 법류사, 35. 법림사, 36. 벽사, 37. 보리사, 38. 보문사, 39. 봉덕사, 40. 봉성사, 41. 봉은사, 42. 부개사, 43. 분황사, 44. 불국사, 45. 불무사, 46. 사자사, 47. 사천왕사, 48. 삼랑사, 49. 생의사, 50. 석가사, 51. 석불사(석굴암), 52. 석장사, 53. 선방사, 54. 송화방, 55. 숭복사, 56. 신선사, 57. 신원사, 58. 신인사, 59. 실제사, 60. 안계사, 61. 안흥사, 62. 양관사, 63. 양존사, 64. 양피사, 65. 애공사, 66. 엄장사, 67. 영경사, 68. 영묘사, 69. 영흥사, 70. 왕망사, 71. 용장사, 72. 원녕사, 73. 원연사, 74. 원원사, 75. 유덕사, 76. 이거사, 77. 인용사, 78. 임천사, 79. 웅수사, 80. 자추사, 81. 장수사, 82. 정혜사, 83. 중생사, 84. 지중사, 85. 창림사, 86. 천관사, 87. 천룡사, 88. 천엄사, 89. 천은사, 90. 천주사, 91. 청룡(지)사, 92. 취선사, 93. 피리사(염불사), 94. 혈사, 95. 혜숙사, 96. 호원사, 97. 흥효사, 98. 황룡사, 99. 황복사, 100.황 성사, 101. 흥륜사, 102. 갑산사(기와), 103. 만정지사(기와), 104. 사제사(기와), 105. 인정지사(기와), 106. 동사(기와)

8) 김동하, 앞의 글, 65-69면. 사찰명이 확인된 사찰터 27개는 다음과 같다. 1. 감산사(외동), 2. 감은사(양북), 3. 고선사(덕동), 4. 곡사(원성왕릉), 5. 굴불사(소금강산), 6.무 장사(암곡), 7. 미탄사(인왕동),

사찰은 왕경에서 경주 외곽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서천 주변에서 시작해서 6세기 중엽에는 월성 주변, 7세기 후반 낭산 일원과 토함산 북록, 8세기 중엽 형제산, 토함산 남록, 8세기 후반 이후에는 현재의 경주시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9)]

2) 2000년대 이후 신라 사찰터 출토 주요 금속공예품 현황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이후 935년 멸망 때까지 건립되었던 사찰의 숫자는 대략 500여 개이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200개 이상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찰들은 현재까지 법맥이 계승되는 곳도 있지만, 많은 수의 사찰들은 폐사되어 현재 터만 남아 있다. 신라 사찰의 조사는 1902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조사의 연혁을 정리한 글도 있다.[10)] 여기에서는 기존의 글을 참고로 2000년대

---

8. 망덕사(배반동), 9. 백률사(소금강산), 10. 분황사(구황동), 11. 불국사(토함산), 12.사 천왕사(배반동), 13. 삼랑사(성건동), 14. 석장사(석장동), 15. 숭복사(외동), 16. 영묘사(사정동), 17. 용장사(남산), 18. 천룡사(남산), 19. 흥륜사(사정동), 20. 갑산사(안강), 21. 황룡사(구황동), 22. 천관사(교동), 23. 이거사(도지동), 24. 원원사(외동), 25. 석불사(토함산), 26. 기림사(양북면) 27. 정혜사(안강읍). 탑이 남아있는 사찰터 29개는 다음과 같다. 1. 傳)황복사 삼층석탑(구황동), 2. 傳)염불사 동서삼층석탑(남산동), 3. 傳)호원사 석탑재(황성동), 4. 傳)사자사석탑재(배반동), 5. 傳)담암사 석탑재, 6. 傳)곤원사 석탑재(탑동), 7. 傳)북명사 석탑재(내남면), 8. 傳)금곡사 석탑재(안강읍), 9. 나원리 오층석탑(현곡면), 10. 남사리 삼층석탑1(현곡면), 11. 남사리 삼층석탑2(현곡면), 12. 서악동 삼층석탑(서악동), 13. 용명리 삼층석탑(건천읍), 14. 마석산 죽곡 삼층석탑(내남면), 15. 마동 삼층석탑(마동), 16. 효현동 삼층석탑(효현동), 17. 남산리 동서삼층석탑(남산동), 18. 천군동 동서삼층석탑(천군동), 19. 장항리 동서오층석탑(양북면), 20. 황룡사 서편 동서석탑재(구황동), 21. 입실리 동서석탑재(외동읍), 22. 인왕동동서석탑재(인왕동), 23. 황룡곡 동서삼층석탑재(덕동), 24. 하구리 석탑재(현곡면), 25. 피마곡 석탑재(천군동), 26. 동천동 석탑재(동천동), 27. 구황동 모전석탑지(구황동), 28. 傳)만정지사 목탑지(구황동), 29. 옥다리돌 목탑지(배반동). 불상이 남아있는 사찰터 18개는 다음과 같다. 1. 傳)남항사 석불입상(노서동), 2. 안계리 석불좌상(안강), 3. 충효동 석조반가사유상(충효동), 4. 서악동 마애삼존불입상(서악동), 5. 단석산 마애불상군(건천읍), 6. 장창곡 미륵삼존불상(남산), 7. 배리 석조삼존불입상(남산), 8. 능지탑 소조불좌상(배반동), 9. 입곡 석불입상(남산), 10. 용장계 법당곡(남산) 석불좌상, 11. 열암곡 석불좌상·마애불입상(남산), 12. 마석산 백운대 마애불입상(남산), 13. 칠불암 마애불상군(남산), 14. 영지 석불좌상(외동읍), 15. 활성리 석불입상(외동읍), 16. 냉천리 석불좌상(외동읍), 17. 골굴암 마애불좌상(양북면), 18. 근계리 석불입상(안강읍). 기타 3개의 사찰터는 당간지주가 남아있는 1. 傳) 남간사지, 2. 보문동사지(보문동), 3. 보문동 연화문 당간지주이다.

9) 김동하, 앞의 글, 69-85면.

10) 신라 사찰 조사의 역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로 군위 인각사지와 삼천 흥전리사지 시발굴조사도

이후 금속공예품이 출토된 사찰 조사의 경과를 [표 1]로 정리하였다.[11)]

[표 1] 2000년대 이후 금속공예품 출토 신라 사찰 조사 경과

연번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기관	참고자료	출토 금속공예품
1	2002-2011	인왕동사지 학술발굴조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인용사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전 인용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Ⅰ·Ⅱ』	청동광명대, 청동완, 금동투조장식 등
2	2004	창녕 말흘리사지 발굴조사	경남고고학연구소	『창녕 말흘리 유적』	청동연화진병향로, 청동다족향로, 금동투조장식 등
3	2009	군위 인각사지 발굴조사	불교문화재연구소	『인각사-군위인각사 5차 발굴조사 보고서』	금동사자진병향로, 청동정병, 청동탑형향합 등
4	2014-2020	삼척 흥전리사지 시발굴조사	불교문화재연구소	『삼척 흥전리사지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삼척 흥전리사지 2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삼층석탑주변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삼층석탑주변) 내 유적 2차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금동사자, 청동정병, 청동기명, 청동인장, 금동투조장식 등
5	2020	경주 황룡사지 서회랑 서쪽지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금동봉황장식
6	2018-2020	경주 황용사지	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황용동 황용사지 1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경주 황용동 황용사지 2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금동수면, 청동당간, 보당 기단부, 금동사자, 청동팔각대좌, 청동귀꽃 등

2000년대 이후 신라 사찰터 시·발굴조사에서는 경주의 황룡사와 황용사, 창녕 말흘리사지, 군위 인각사, 삼척 흥전리사지 등에서 새로운 불교공예품들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경주 인왕동 출토 청동광명대는 신라의 광명대로는 처음 출토된 것으로 고려시대 광명대의 원류로서의 의미가 있다. 창녕

포함하였다. 최장미, 「경주지역 신라 사찰 조사의 연혁과 추이」, 『신라문화』 57, 신라문화연구소, 2020.

11) 2000년대 이후 경주 이외 지역의 발굴조사 중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는 조사를 포함시켰다. 불교문화재연구소·군위군, 『인각사-군위인각사 5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1; 불교문화재연구소, 『삼척 흥전리사지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4; 불교문화재연구소, 『삼척 흥전리사지 2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불교문화재연구소, 『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삼층석탑주변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불교문화재연구소, 『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삼층석탑주변) 내 유적 2차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7.

말흘리사지 출토 금동연화진병향로와 금동다족향로, 금동투조장식은 병향로 진자의 변화와 다족향로의 다리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이고, 금동번의 일부로 추정되는 금동투조장식도 출토되었다. 군위 인각사에서는 금동사자진병향로 청동탑형향합, 청동정병 등 중국 당대 선종계 기물과 관련있는 금속공예품들이 출토되었다. 삼척 흥전리사지에는 금동사자진병향로의 사자와 청동정병, 금동투조장식, 청동인장 등 선종 관련 유물과 장엄구, 사찰행정 관련 인장 등이 출토되었다. 경주 황룡사지 서회랑 서쪽지역에는 기존에는 발견된 적이 없던 금동봉황장식자물쇠가 출토되었고, 경주 황용동 황용사지 매납유구에서는 금동수면, 청동당간, 금동사자, 청동팔각대좌 등 기존의 사찰터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던 새로운 금속공예품이 출토되었는데, 금속공예품의 성격상 왕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000년대 이후 신라 사찰터 조사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은 사찰 출토 금속공예품의 종류와 용도뿐만 아니라 신라 금속공예의 범위와 수준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신라 사찰 출토 불교공예품의 종류와 제작시기

신라의 사찰터에서 출토된 불교공예품은 용도에 따라 공양구, 범음구, 장엄구, 일상생활용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양구는 사찰에서 향, 정수 등 공양을 할 때 사용한 향로와 정병, 광명대 등이 있다. 장엄구에는 불전을 장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보당, 귀꽂, 용두, 금동투조장식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용구로는 걸이용 금동수면, 금동자물쇠, 청동그릇 등이 있다.

1) 供養具

(1) 향로

신라의 사찰터에서 출토된 향로에는 통일 이후에 제작된 병향로와 다족향로가 있다. 병향로는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에 작미형병향로가 사용된 이후 당대 8세기에는 사자진병향로가 사용되었다. 중국의 사자진병향로는 당대 선종 7조인 신회선사 신탑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꽃모양 받침과 內爐가

있는 몸체, 여의두형 금구와 손잡이와 사자로 구성되어 있다.[12][圖 1]



[圖 1] 〈사자진병향로〉, 唐 758년 이전, 길이 41.6㎝, 높이 11.8㎝,
陝西省 洛陽 神會身塔 출토, 陝西省博物館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사자진병향로는 군위 인각사 출토 금동사자진병향로,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금동사자진병향로의 사자, 경주 황룡사지와 구황동 원지 출토 사자진병향로의 사자와 몸체, 병향로의 진자를 사자에서 연봉으로 변용한 창녕 말흘리사지 출토 금동연화진병향로 등이 있다.

2009년 군위 인각사에서 출토된 금동사자진병향로는 길이 39.8㎝, 높이 10㎝로 꽃모양 받침, 몸체, 如意頭形 金具, 손잡이와 사자로 구성되어 있다.[圖 2] 이 향로는 인각사 1호 건물지 동쪽 방형집석유구에서 출토되었다.[13] 꽃모양 받침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남아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24엽의 꽃모양 받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꽃모양 받침과 몸체를 연결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짧은 축 중간에는 주판알 모양의 장식이 있고, 축은 리벳으로 몸체와 결합하고 있다. 몸체는 저부가 편평하고 구연으로 가면서 점차 외반하고 있다. 손잡이는 몸체의 밑면 및 구연부와 연결되며, 손잡이 시작 부분에는

12) 洛陽市文物工作隊, 「洛陽唐神會和尙身塔塔基淸理」, 『文物』 1992年-3期.
13) 불교문화재연구소·군위군, 앞의 책, 83면. 인각사의 방형집석유구는 통일신라시대의 탑으로 알려진 팔공산 부인사 동서삼층석탑지와 경주의 傳 인용사지 동서 탑지, 남리사지 동서 탑지 등에서 확인되는 4m 내외의 탑지 하부 지정방식과 유사성이 있으며, 선행한 인각사 발굴조사에서 인각사 삼층석탑의 원지가 확인되지 않아 방형집석유구는 인각사 삼층석탑의 원지일 가능성이 높다.

여의두형 금구장식이 있다. L자 모양 손잡이의 끝부분의 사자는 覆蓮과 仰蓮으로 구성된 연화좌 위에 앞다리를 세우고 정면을 보고 앉아 있다. 사자의 입 양쪽 끝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고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4]



[圖 2] 〈金銅獅子鎭柄香爐〉, 통일신라, 길이 39.8cm, 軍威 麟角寺 출토, 불교중앙박물관

군위 인각사지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삼성미술관 리움의 금동사자진병향로를 들 수 있다.[圖 3] 리움 소장품은 군위 인각사 출토품과 기본 형태는 유사하지만, 사자 장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 사자는 복련이 새겨진 원반형 연화좌 위에 앉아 있으며, 입에는 고리를 끼웠던 구멍이 있고, 세 갈래로 나뉜 꼬리는 가운데가 가장 높고 넓어서 세 갈래의 꼬리가 비슷한 넓이를 가진 군위 인각사지 출토품과는 양식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각사 출토품보다는 늦게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圖 3] 〈사자진병향로〉, 통일신라, 길이 40.8㎝, 삼성미술관 리움



[圖 4] 황룡사지 출토 사자, 통일신라, 높이 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처럼 사자의 입에 고리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있는 것은 경주 황룡사지에서도

14) 최응천, 「軍威 麟角寺 출토 佛敎 金屬工藝品의 性格과 意義」, 『先史와 古代』, 한국고대학회, 2010, 85면.

출토되었다.[圖 4][15] 황룡사지 출토 사자진병향로의 사자는 입에 고리를 끼웠던 구멍이 있고, 세 갈래의 꼬리 중 가운데가 가장 높고 넓은 모습으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사자진병향로의 사자와 가까운 모습이지만, 사자가 앉는 받침의 가운데가 뚫린 모습이어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보다는 늦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삼척 흥전리사지 남쪽 사역에서는 금동사자상이 출토되었다.[圖 5] 흥전리사지 출토 금동사자상은 사자진병향로의 손잡이 끝에 놓이는 사자로, 복련이 시문된 연화좌 위에 정면을 향해 앞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 사자와 연화좌는 일체 주조하였고, 연화좌의 밑면에는 촉이 있어 L자형 손잡이 끝부분과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얼굴은 눈과 귀를 제외한 코와 입은 떨어져 나갔고, 귀는 작지만 쫑긋 세우고 있다. 꼬리는 신회신탑 출토품, 인각사 출토품과 같이 균일하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끝부분은 안쪽으로 말려 있다.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사자는 입에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표현되지 않아 군위 인각사 출토품과는 다른 모습이다. 사자진병향로의 시원으로 보고 있는 8세기 중반의 唐代 神會身塔 출토 사자진병향로의 사자도 입에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없어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사자진병향로의 사자는 신회신탑 출토 사자진병향로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품이 양식적으로 군위 인각사 출토품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圖 5] 〈금동사자〉, 통일신라, 높이 6.2㎝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



[圖 6] 〈사자진병향로의 內爐〉, 통일신라,
높이 5.6㎝, 지름 9.9㎝, 경주 구황동
원지 출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구황동 원지에서는 사자가 장식된 사자진병향로의 內爐가 출토

1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2013, 163면.

되었다.[圖 6] 사자진병향로는 내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사자진병향로의 시원으로 보고 있는 8세기 중반의 唐代 神會身塔 출토 사자진병향로에도 내로가 있어 발생 초기인 8세기 중반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로에 사자가 장식되는 것은 신회신탑 이후 단계에 보이며, 경주 구황동 원지 출토품을 비롯해 일본 정창원 소장 사자진병향로의 내로에도 사자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로를 쉽게 들어내기 위한 장식으로 생각된다.

2003년 경상남도 창녕 말흘리 1호 건물지 남서쪽에서는 연봉을 진자로 한 병향로가 출토되었다.[16][圖 7] 말흘리 출토 병향로는 꽃모양 받침과 몸체, 如意頭形 金具, 손잡이와 연봉형 진자로 구성되어 있다. 꽃모양 받침은 22엽으로 24엽의 인각사 출토품보다는 2엽이 적게 표현되어 있다. 창녕 말흘리 출토 병향로의 기본 형태는 사자진병향로와 같지만, 손잡이의 끝에 놓이는 진자의 모습이 다르다. 唐代 8세기와 9세기 유행한 柄香爐는 손잡이 끝부분에 獅子와 甁形 진자가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말흘리 출토품은 사자와 병형 진자 대신 연봉형 진자로 대체하고 있다. 병향로 진자의 변화는 사자에서 병으로 진행되었으나 말흘리 출토품처럼 연봉으로 진행된 것은 주변국에서는 볼 수 없는 신라만의 현상이고, 연화를 모티브로 한 것은 성덕대왕신종 비천상이 들고 있는 연화형병향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7]



[圖 7] 〈蓮花鎭柄香爐〉, 통일신라 10세기, 길이 41.4cm, 국립김해박물관

16) 慶南考古學硏究所, 『昌寧 末屹里 遺蹟』, 2005, 97-98면.
17) 이용진, 「한국 불교향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 129면.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향로는 사자진병향로가 주류를 이루고 말흘리사지 출토품처럼 연봉을 진자로 사용한 예도 있다. 국내에 있는 신라의 사자진병향로는 모두 통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중국 당대 신회신탑 출토 사자진병향로를 비롯한 중국의 사자진병향로의 변화과정을 참고로 하면,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품이 가장 빠르고 이후 군위 인각사지 출토품, 경주 황룡사지와 구황동 원지, 창녕 말흘리 출토품의 순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사자의 입에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의 여부와 꼬리의 모습에 따라 선후관계가 형성된다. 신라의 사자진병향로는 중국 당대 신회신탑 출토품과 신라 통일기 이후 남종선이 전래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9세기 전반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비편을 참고로 하면, 선종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황동 원지 출토 사자진병향로의 내로, 창녕 말흘리사지 출토 연화진병향로는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익산 미륵사지와 창녕 말흘리사지에서는 다족향로가 출토되었다.[圖 8] 익산 미륵사지 출토 다족향로는 4개의 다리를 지닌 향로인데, 몸체에는 고리를 물고 있는 鋪首와 수각이 리벳으로 연결되어 있고, 뚜껑은 완만한 고깔 모양을 하고 있다. 창녕 말흘리에서는 뚜껑이 없는 삼족이 달린 향로가 출토되었는데, 사족에서 삼족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석조물에 표현된 다족향로도 삼족으로 표현되어 있어 석조물의 장식에서도 향로 다리의 개수가 변화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 사찰터 출토 다족향로는 익산 미륵사지 출토품이 당대 다족향로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 8-9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창녕 말흘리 출토품은 다리의 개수가 삼족으로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로 추정된다.



[圖 8] (좌) 익산 미륵사지 출토 다족향로, 통일신라, 높이 30㎝, 국립익산박물관
(우) 창녕 말흘리사지 출토 다족향로, 통일신라, 높이 11.5㎝, 국립김해박물관

(2) 정병

정병은 부처님에게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로 주구와 첨대가 달려 있다. 『三國遺事』「義解」5 勝詮髑髏에는 정병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8] 당나라 승려 현수는 의상의 예물에 대한 답례로 신라로 귀국하는 승전 편에 西國의 軍持澡罐을 보냈는데, 이때 보낸 정병은 주구와 첨대가 달린 군지형의 정병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주구와 첨대가 달린 정병이 신라 사찰터인 군위 인각사지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되었다. 군위 인각사지 정병은 1호 건물지 동쪽 방형집석유구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圖 9][19] 2점 모두 주구와 첨대를 가진 군지형의 정병으로 1점은 저부가 없어졌다. 이 2점의 정병은 어깨선이 내려와 있고, 주구에는 뚜껑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첨대는 8각으로 전체적으로 세장한 모습이다. 삼척 흥전리사지 청동정병은 東院 1호 건물지 구들 내에서 옆으로 뉘인 채 출토되었는데, 사용하다 그대로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20][圖 10] 2점의 정병은 모두 주구와 첨대가 달린 군지형으로 몸체의 어깨선이 내려와 왔고, 주구에는 뚜껑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고, 첨대는 8각이다. 흥전리사지 출토 정병에서 주목되는 것은 첨대와 몸체 상단 어깨 부분에 선각의 동심원이 새겨진 것으로 인각사 출토품과는 다른 모습이다. 군위 인각사 출토 정병과 흥전리사지 출토 정병은 모두 외반한 윤형굽과 경사진 어깨선, 뚜껑이 달린 주구와 팔각의 첨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흥전리사지 출토 정병은 어깨 상부의 음각선과 첨대가 짧아지며 팔각이 뚜렷해진 점 등은 인각사지 출토 청동정병보다는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1]

---

18) 『三國遺事』卷4 「義解」5 "勝詮髑髏, (…) 今附西國軍特澡灌一口 用表微誠 (…)"
19) 불교문화재연구소・군위군, 앞의 책, 83면.
20) 최응천, 「흥전리사지 출토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중요성」,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학술대회: 흥전리사지 조사성과와 의의 자료집』, 삼척시・불교문화재연구소, 2018, 107면.
21) 최응천, 앞의 글, 2018, 106-109면.



[圖 9] 〈청동정병〉, 통일신라,
군위 인각사 출토, 불교중앙박물관



[圖 10] 〈청동정병〉, 통일신라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

중국 당대 신회신탑에서는 사자진병향로와 탑형향합, 정병, 발우 등이 조합을 이루는 기물로 출토되어 선종계 기물임을 알 수 있다.[22] 군위 인각사지에서도 신회신탑과 같이 사자진병향로와 탑형향합, 정병 등이 발견되어 선종계 기물과 같은 조합을 이루고 있고, 삼척 흥전리사지에는 사자진병향로의 사자와 정병이 같은 곳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흥전리사지가 선종 사찰[23]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도 선종 관련 기물이었을 가능성은 있다.

(3) 광명대

광명대는 불교의 諸供養 중 香花 공양처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燈 공양에 사용하는 공양구이다. 신라의 광명대는 2007년 경주의 傳 仁容寺址 연못 호안의 남쪽 흑회색 점질토 50㎝ 깊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신라 사찰터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유일하다.(圖 11) 이 광명대는 원반형 받침 아래에 3개의

22) 洛陽市文物工作隊, 앞의 글(1992); 李學勤, 「禪宗早期文物的重要發現」, 『文物』1992-3期.
23) 최연식,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의 내용과 흥전리사지의 역사적 성격」, 『목간과 문자』 20, 한국목간학회, 2018, 338-346면.

말굽형 다리가 달려 있고, 원반형 받침 중앙에 놓인 죽절형 간주는 받침과 원반형 등좌를 연결하고 있다. 간주와 원반형 등좌는 주석 땜질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24] 광명대는 아니지만 신라 통일기 이후의 촛대 중에는 광명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촛대는 4개의 다리가 연결된 원반형 받침, 죽절형 간주, 원반형 촉좌와 촉꽂이로 구성되어 있다.[圖 12] 이 촛대는 다리와 받침, 간주, 촉좌를 별주 후 리벳으로 연결하고 있어 땜으로 결합한 전 인용사지 출토 광명대와는 다른 결합방법을 하고 있다. 경주 인왕동사지 출토 청동광명대는 신라 통일 이후의 등공양에 사용하는 등촉구의 경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삼족이 달린 받침과 대칭을 이루는 죽절형 간주와 원형 등좌는 고려시대 광명대의 원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 시기 촛대와의 연관성도 있다.



[圖 11] 〈청동광명대〉, 통일신라, 높이 33.5㎝, 경주 인왕동사지 출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圖 12] 〈청동촛대〉, 통일신라, 높이 38.0㎝, 국립중앙박물관

24) 「통일신라 光明臺 그 모습을 드러내다」, 문화재청, 2007.10.23., https://www.cha.go.kr/newsBbz /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248752&sectionId=b_sec_1&mn=NS_01_02 (2022.9.30. 검색).

2) 범음구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범음구로는 군위 인각사 출토 청동금고를 들 수 있다.[圖 13] 인각사 1호 건물지 동쪽 방형집석유구에서 출토된 청동금고 안에는 청동합의 뚜껑과 탑형 향합, 가릉빈가상이 있었고, 청동금고 옆으로 청동정병과 청동이중합이 놓여 있었다.[25] 인각사지 출토품의 청동금고는 매납 불교공예품을 담는 외용기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고, 고려시대 이전 외용기를 사용한 매납방식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인각사 출토 청동금고는 뒷면의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전체적인 기형은 잘 남아있다. 앞면인 고면에는 세 줄의 융기 동심원을 장식하여 당좌구, 내구, 중구, 외구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당좌구 주변에는 연화문을 돋을새김으로 장식하였다. 뒷면은 옆면에서 연장된 전이 길게 형성되어 비교적 짧은 공명구가 뚫려 있다. 뒷면의 전에도 두 줄의 융기 동심원이 새겨져 있다. 이 금고의 측면은 폭이 넓은 편으로 세 줄의 융기선이 장식되어 있고, 3개의 고리를 부착하였는데, 고리는 管 형태로 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인각사 출토 청동금고는 통일신라시대 금고에서 고려시대 금고로 이행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圖 13] 〈청동금고〉, 통일신라 9세기 후반~10세기초, 지름 40㎝, 두께 14.3㎝, 군위 인각사지 출토

25) 불교문화재연구소・군위군, 앞의 책, 86-89면.

3) 장엄구(장식구)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장엄구로는 불전 장엄에 사용된 금동투조장식구, 寶幢, 귀꽂, 용두 등이 있고, 건물의 난간이나 벽을 장식하던 장식구 등도 있다. 2018년부터 2020년 경주 황용동 황용사지에서 출토된 장엄구들은 기존의 사찰터에서 출토된 것들과는 다른 장엄구들이어서 주목을 받았다.[26]

(1) 금동투조장식구

금동투조장식구는 경주 인왕동사지와 황룡사지, 창녕 말흘리사지, 삼척 흥전리사지, 포항 법광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금동투조장식구는 원형, 방형, 오각형, 삼각형 등의 장식구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문양을 투조로 표현하였다.[圖 13] 원형의 금동투조장식구는 지름 4.4~11.9㎝에 이르며 황룡사지와 창녕 말흘리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방형의 금동투조장식구는 정방형과 장방형의 장식구가 있는데, 정방형 금동투조장식구는 경주 인왕동사지와 창녕 말흘리사지에서, 장방형 금동투조장식구는 창녕 말흘리사지에서 출토되었다. 정방형 금동투조장식구는 6.7~9.9㎝의 크기로 네 모서리에 못구멍이 있으며, 장방형 금동투조장식구는 3.2~9.6㎝의 크기로 한 개의 판에 6개의 못구멍이 있다. 오각형의 금동투조장식구는 경주 인왕동사지와 창녕 말흘리사지에서 출토되었고, 크기는 14.7~19.7㎝에 이르며 5개의 못구멍이 있다. 삼각형의 금동투조장식구는 창녕 말흘리사지에서 출토되었고, 크기는 12.3㎝에 이르며, 세 모서리에 못구멍이 있다. 이들 금동투조장식구는 천개 장식이나 번으로 추정하고 있고, 창녕 말흘리사지 출토 금동투조장식구들에는 직물의 흔적이 있어 금동투조장식구에 천을 붙여 천개장식이나 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26) 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황용사지(1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 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황용사지(2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圖 13] 〈금동투조장식구〉, 통일신라, 황룡사지, 인왕동사지 출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圖 14] 〈금동투조장식〉, 통일신라, 삼척 흥전리사지 서원 금당지 출토

삼척 흥전리사지 서원 금당지에서 출토된 금동투조장식은 접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조장식 내부의 地透로 표현한 당초문과 외곽 테두리의 사화형 문양과 여백의 어자문은 금동투조장식이 수준 높은 장엄구였다는 것을 알려준다.[圖 14] 금동투조장식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장방형의 얇은 금동판이 두 번 접힌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투조장식 테두리 끝부분 2곳이 경첩의 연결고리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 금동투조장식은 金銅幡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27] 현재까지 출토된 금동투조장식 중 가장 화려하고 수준 높다.

(2) 寶幢

2020년 경주 황용동 황용사지 2차 조사시 서쪽 회랑지 매납유구에서는 금동보당과 보당의 기단부가 출토되었다.[28](圖 15) 경주 황용사지 매납 유구

27) 최응천, 「흥전리사지 출토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중요성」,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학술대회: 흥전리사지 조사성과와 의의 자료집』, 삼척시・불교문화재연구소. 2018, 109면.
28) 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황용사지(2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에서는 6점의 금동보당이 출토되었는데, 작고 가는 보당을 길고 큰 보당에 끼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보당의 연결방식은 리움 소장 고려시대 금동용두보당의 일체주조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크기에 따라 확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1109년에 조성된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기단부에서도 같은 보당이 출토되어 신라의 제작방식은 12세기 전반에도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29] 당간의 기단부는 높이 8.0㎝, 세로 16.7㎝, 가로 16.7㎝의 층단형으로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기단과 유사한 모습이다.



[圖 15] 〈금동보당과 기단〉, 보당, 높이 15.0-29.9㎝ / 지름 7.0-8.7㎝
기단, 높이 8.0㎝ / 너비 16.7㎝, 황용사지 매납 유구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

(3) 귀꽃

불전을 장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귀꽃이 황용동 황용사지 2차 조사 때 매납 유구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圖 16] 큰 것은 높이 20.0㎝, 작은 것은 높이 9.5㎝로 사리장엄구나 대좌에 장식된 귀꽃에 비해 큰 편이다.



[圖 16] 〈금동귀꽃〉, (좌) 높이 20.0㎝ / 너비 17.5㎝,
(우) 높이 9.5㎝ / 너비 10.2㎝, 황용사지 매납유구 출토

29) 이용진, 「경주 황용동 황용사지 출토 불교공예품의 성격과 제작시기」, 『미술사학』 4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2, 41면.

큰 금동귀꽂은 윗부분에 수정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으며, 중간부분의 왼쪽에는 다른 식물문양 장식이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파손되었다. 아랫부분은 왼쪽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어딘가에 꽂거나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작은 금동귀꽂도 윗부분에 수정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촉이 달려 있다. 황용사지 출토 금동귀꽂과 같이 큰 귀꽂은 영덕 유금사에서도 출토되어 불전 내부의 장엄에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용, 봉황장식구



[圖 17] 〈용, 봉황장식구〉, 통일신라, 황룡사지 출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황룡사지에서는 용과 봉황 장식구들이 출토되었다.[30][圖 17] 청동용두장식은 길이 8.0㎝의 크기로 용의 머리부분만 남아있다. 입을 약간 벌리고 정면을 바라보는 용은 목의 일부가 남아있어 다른 것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룡사지 서편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동봉황장식구는 冂 형태의 장식 중앙에 있는 반구형 장식 위에 봉황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冂 형태의 장식으로 보아 어디에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장식은 건물의 위엄과 장식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용과 봉황 장식구 들은 경주 월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사찰의 장식구와 왕실의 장식구와의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일상생활용구

(1) 자물쇠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일상생활용구 중에서 자물쇠가 있다.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자물쇠는 신라 통일기 이후의 것으로 황룡사지와 창녕 말흘리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다.[圖 18] 2020년 황룡사 서회랑 외곽 건물지에서는 금동봉황

30)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52면.

장식자물쇠가 출토되었는데, 이 자물쇠는 한 번도 출토된 적 없는 형태의 자물쇠였다.[31] 신라의 자물쇠는 자물통과 잠글쇠로 구성되는데, 이 자물쇠는 금동봉황이 자물통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봉황을 날개를 펴고 앉아 자물통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 날개와 깃털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봉황의 뒤로는 끝부분이 꽃봉오리 형태로 된 弦部가 있다. 이 금동자물쇠가 출토된 곳은 황룡사지 서회랑 외곽건물지로 신라 사찰의 회랑 바깥쪽은 주로 승려가 생활하는 공간이자, 사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2] 이와 같은 생활공간에서 봉황이 장식된 자물쇠가 출토된 것은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치 혹은 시설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창녕 말흘리사지 출토 금동자물쇠는 ㄷ자형의 자물통으로 잠글쇠가 통과하는 수판에는 입을 벌린 용을 표현하고 있고, 자물통의 몸통에는 보상화무늬를 새겼다.



[圖 18] 〈금동자물쇠〉 (좌) 황룡사지 출토, 길이 4.0㎝/너비 7.0㎝
(우), 창녕 말흘리사지 출토, 길이 24.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김해박물관

이처럼 신라 사찰터에서 발견된 자물쇠는 사찰의 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이나 봉황 등을 장식하고 금으로 도금한 금동자물쇠를 특정 공간의 중요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靑銅器皿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 중에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청동대접과 청동완과 같은 기명도 있다. 경주 인왕동사지에서는 4점의 청동용기가

31) 문화재청 보도자료(2020.11.25.), 「신라・고려 사찰 황룡사에서 금동봉황장식 자물쇠 출토」
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不二, 둘이 아닌 하나』, 2021, 130면.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이 기명은 외반한 윤형굽에 몸체 구연에는 짧은 전이 있어 뚜껑이 있었던 기명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청동대접은 경주를 비롯해 황해도 평산에서 출토되었고, 군위 인각사지에서는 몸체에 양각선이 둘러진 청동대접 등이 출토되었으며, 같은 기형이 월지에서도 출토되었다.[圖 19] 이 청동기명들은 구리와 주석이 8:2로 섞인 합금으로, 경주에서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에도 수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창원의 사하리가반은 九重加盤으로, 인각사 출토 청동대접과 유사하다.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청동기명은 사찰뿐만 아니라 왕실의 생활유적인 월지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왕실의 청동기명들과 사찰의 기명들은 공유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왕경에서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圖 19] 1.경주 인왕동 출토 청동대접 2.황해도 평산 출토 청동대접 3.부여 부소산 출토 청동대접 4.경주 월지 출토 청동대접 5.군위 인각사지 출토 청동대접 6.일본 정창원 소장 佐波理製 九重加盤

(3) 금동수면

경주 황용동 황용사지에서는 3점의 금동수면이 출토되었다.[圖 20] 3점의 금동수면 중 입에 연봉을 물고 있는 것은 동탑 기단부에서 출토되었고, 연봉이 없는 것은 매납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금동수면은 이목구비와 뿔, 깃털이 표현되어 있으며, 눈과 눈썹 뿔 등 얼굴의 윗부분을 제외하면 투조로 되어 있다. 황용사지 출토 금동수면과 유사한 것이 월지에서 출토되었다. 월지



[圖 20] 금동수면, (좌) 높이 13.0㎝, 너비 9.0㎝,
(중, 우) 높이 13.3㎝, 너비 10.5/11.3㎝, 불교문화재연구소

출토 금동수면은 황용사지 출토품과는 다르게 입을 다문 채 고리를 물고 있으며, 고리는 끝으로 가면서 가늘어지고 있으며, 옷걸이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지 출토품을 참고로 하면, 황용사지 출토 금동수면도 벽사적 의미의 걸이로 볼 수 있다.

5) 청동인장

신라의 사찰터에서는 청동인장도 출토되었다. 신라의 인장들은 월지, 황룡사지, 미륵사지, 월성해자, 설봉산성 등의 왕실의 생활유적과 국찰, 지방 행정치소 등에서 출토되었다.[33] 신라 사찰터인 경주 황룡사지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는 같은 형식의 청동인장이 출토되어 주목을 끌었다.[圖 20]



[圖 20] 〈청동인장〉 1.경주 황룡사지 출토, 길이 6.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길이 5.1㎝, 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황룡사지 출토 청동인장은 삼엽형의 손잡이와 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 김길식, 「양주 대모산성 출토 금속유물의 성격과 그 위상」,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 출판부, 2013, 141-142면.

인장면에는 '大公私家之印'이 전서로 새겨져 있다.[34]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인장은 4호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두 점 중 한 점은 청동인주함에 담긴 채 출토되었다. 두 점의 인장은 모두 삼엽형 손잡이에 방형의 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점에는 전서로 '梵雄官衙之印' 다른 한점에는 卍자상으로 연결한 문양이 확인된다.[35] '梵雄官衙之印' 印文 중 梵雄은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관아인 僧官의 도장을 의미한다.[36] 이는 삼척 흥전리사지가 승관과 관련된 사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 통일기 승단에서 사용한 승관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三國史記』卷7「新羅本紀」文武王條下에는 문무왕이 관청 및 주군의 인장을 만들어 보내주었다는 내용이 있어 국가 주도하에 인장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7] 황룡사지 출토 '大公私家之印'銘 인장과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梵雄官衙之印'銘 인장은 삼엽형의 손잡이 형태와 방형의 인장과 인장면의 서체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비편의 내용[38]을 참고로 하면, 9세기 전반에 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6) 신라 사찰 출토 금속공예품의 제작시기와 성격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 935년 멸망 때까지 신라에는 500여 개 이상의 사찰이 있었고, 이중 200여 개는 경주에 건립되었다. 칠처가람과 성전사원을

---

34) 황룡사지 출토 청동인장의 大公私家之印은 '六公私家之印'으로도 보는 견해도 있다. 이동주, 「신라의 문서행정과 인장」, 『영남학』 7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35) 문화재청 보도자료(2017.5.2.)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청동 승관인 확인」.https://www. 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556&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title&strValue=%ec%8a%b9%ea%b4%80%ec%9d%b8&sdate=&edate=&category=&mn=NS_01_02(2022.9.30. 검색).

36) 박승현,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성과」, 『2022 삼척 흥전리사지 조사성과와 활용 학술대회 자료집』, 강원도・삼척시・불교문화재연구소, 2022, 앞의 글, 19면

37) 『三國史記』卷7「新羅本紀」文武王條 "十五年, 春正月, 以銅鑄百司及州郡印, 頒之"

38)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비편의 내용을 보면, 비의 주인공은 蘇判의 관등을 가진 진골 金氏의 아들로 태어나 10대에 출가하여 성실한 수행으로 많은 상서를 드러냈고, 具足戒를 받은 이후에는 계율을 지키는 등 수행에 힘써 많은 명망을 얻었던 선종 승려였던 것을 알 수 있다. 850년대에 국왕에게 당나라로부터 大藏經을 구해올 것을 건의하였으며, 주인공은 咸通 연간(860-873)에 입적하였고, 國統의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연식,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의 내용과 흥전리사지의 역사적 성격」, 『목간과 문자』 20, 한국목간학회, 2018, 338-346면.

중심으로 경주에 건립되던 신라의 사찰은 중대부터 경주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하대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사찰의 건립이 많았다. 이처럼 왕경과 지방에 건립된 사찰들에서는 의례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속공예품을 제작, 사용하게 되었고,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들은 용도에 따라 공양구, 장엄구, 일상생활용구, 인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양구는 왕경의 사찰과 지방의 사찰인 군위 인각사지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사자진병향로와 청동정병이 출토되었다. 이 향로들은 남종선이 전래된 9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강경과 설법 등에 앞서 行香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황룡사지 출토 사자진병향로는 사자의 양식으로 보아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품이나 군위 인각사 출토품보다는 늦은 시기로 추정되고 사자의 양식으로 보아 리움 소장 사자진병향로을 따르고 있으나 받침 등으로 보아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청동정병은 인각사지와 흥전리사지에서 모두 출토되었으며, 제작 시기는 9세기 전반에서 중반으로 추정된다. 물론 신라에는 주구와 첨대가 달린 군지형 정병의 전래기록이 있고, 석굴암 범천의 지물로 정병이 표현되어 있어 왕경인 경주에도 군지형 정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까지는 왕경의 사찰터가 아닌 지방의 사찰이었던 군위 인각사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되고 있고 이 정병들은 9세기 전반에서 중반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엄구는 금동투조장식구와 보당, 귀꽂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황룡사지와 인왕동사지, 황용동 황용사지 등 주로 경주 일대의 사찰에서 출토되고 있다. 장엄구 중 금동투조장식은 삼척 흥전리사지와 창녕 말흘리사지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 경주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금동투조장식은 왕경 출토품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것이지만, 창녕 말흘리 출토품은 지방화 된 것이다. 신라 사찰 출토 장엄구는 공양구와는 다르게 경주 중심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9세기 이후 지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용구 중 청동기명인 청동완과 청동대접 등은 경주를 중심으로 사용되다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으로의 확산 시기는 9세기 전반으로 생각된다. 청동기명은 왕실유적인 월지 출토품과 사찰 출토품이

유사한 것이 많아 왕실의 기명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물쇠와 옷걸이 용 금동수면도 왕경의 사찰을 중심으로 사용하였는데, 창녕 말흘리사지에서는 장식성이 강한 금동자물쇠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옷걸이용 금동수면은 황용동 황용사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월지 출토 금동옷걸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황용사지 출토품이 월지 출토품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황용사가 동해구로 가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상 왕실과 관련이 있으며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주 황룡사지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청동인장은 삼엽형 손잡이와 방형의 인장, 전서체의 글자 등 유사한 점이 많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참고로 하면, 왕경에서 제작하여 지방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비편을 참고로 하면, 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들은 왕경 지역의 사찰에서는 매납유구에서 다량의 금속공예품이 출토되기보다는 건물지에서 분산되어 출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주 황룡사지와 인왕동사지, 삼척 흥전리사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군위 인각사지에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다량의 금속공예품이 출토되었고, 경주 황용동 황용사지에서도 매납유구 속에서 다수의 금속공예품이 출토되어 신라 사찰터 출토 불교공예품은 8세기에서 9세기로 가면서 금속공예품의 매납 양상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39]

4. 맺음말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이후 935년까지 신라의 왕경과 지방에는 500개 이상의 사찰이 건립되었다. 신라의 사찰에서는 승려들의 출가부터 입적 때까지 의례와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수많은 금속공예품들이 제작,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사찰터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금속공예품만이 출토되고 있어 신라 사찰터 출토 금속공예품 전반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39) 최태선, 「「佛說莊嚴道場及供養具支料度法」寶具와 고고학적 매납사례」, 『청계 정인스님 정년퇴임 기념논총, 佛智光照』, 정인스님 정년퇴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018, 1005-1025면.

적은 양의 금속공예품이라 해도 용도에 따라 공양구, 범음구, 장식구, 일상생활용구, 인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양구에는 향로와 정병, 광명대 등이 있었고, 범음구에는 청동금고, 장식구에는 금동투조장식구와 보당, 귀꽂, 용과 봉황장식 등이 있었다. 일상생활용품은 자물쇠와 청동기명, 옷걸이 등이 있었으며, 인장은 황룡사지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유사한 인장이 출토되었다.

신라의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들은 신라 중대와 하대의 것들이 대부분이고, 왕경에서 지방으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신라 사찰의 건립이 중대에서 하대로 가면서 왕경보다는 지방에 많이 건립되기 때문이고, 제작 시기는 8세기에서 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양구는 남종선의 전래와 함께 사자진병향로가 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었고, 다족향로의 경우에도 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병은 문헌과 부조상을 통해 왕경이었던 경주에서도 사용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까지는 지방이었던 군위 인각사와 삼척 흥전리사지에서만 출토되었다. 장식구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동투조장식구의 경우 월지를 비롯해 황룡사지, 인왕동사지, 창녕 말흘리사지, 삼척 흥전리사지까지 투조기법으로 만든 금동투조장식구가 출토되었고, 중앙과 다르게 지방에서는 9세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용구는 왕경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동기명은 월지와 황룡사, 인왕동사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품 등이 있고, 사찰터 출토품은 아니지만, 황해도 평산과 부여 부소산 출토품이 유사한 모습이어서 왕경의 기명을 지방에서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점은 9세기로 생각된다.

신라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은 고려시대 불교공예품의 원류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자진병향로, 청동정병, 청동금고, 청동광명대, 청동보당 등에서 기형 뿐만 아니라 제작기법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기형과 제작기법 상의 전통은 고려의 12세기에 들어 점차 고려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경남고고학연구소, 『昌寧 末屹里 遺蹟』, 20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不二, 둘이 아닌 하나』, 2021.
_____,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2013.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2015.
국립김해박물관, 『땅 속에 묻힌 염원』, 2011.
김길식, 「양주 대모산성 출토 금속유물의 성격과 그 위상」,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 출판부, 2013.
김동하, 「신라사찰의 분포와 왕경의 형성」, 『신라문화』 5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20, 63-92면.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2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문화재관리국, 『월지 발굴조사보고서』, 1979.
박방룡, 1997, 「신라 도성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7.
불교문화재연구소・군위군, 『인각사-군위인각사 5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1.
불교문화재연구소, 『삼척 흥전리사지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4.
_____, 『삼척 흥전리사지 2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_____, 『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삼층석탑주변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_____, 『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삼층석탑주변) 내 유적 2차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7.
_____, 『경주 황용사지(1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
_____, 『경주 황용사지 2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이난영, 『한국의 금속공예』, 서울대 출판부, 2020.
이동주, 「신라의 문서행정과 인장」, 『영남학』 7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이용진, 「한국 불교향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
이인철・진성규, 『신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003.
최연식, 「흥전리사지 출토 고승비편의 내용과 흥전리사지의 역사적 성격」, 『목간과 문자』 20, 한국목간학회, 2018, 335-353면.
최응천・김연수, 『금속공예』, 솔, 2003.
최응천, 「軍威 麟角寺 출토 佛教 金屬工藝品의 性格과 意義」, 『先史와 古代』, 한국고대학회, 2010, 71-109면.
_____, 「흥전리사지 출토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중요성」,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학술대회: 흥전리사지 조사성과와 의의 자료집』, 삼척시・불교문화재연구소, 2018.
최장미, 「경주지역 신라 사찰 조사의 연혁과 추이」, 『신라문화』 5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20, 7-34면.
최태선, 「「佛說莊嚴道場及供養具支料度法」寶具와 고고학적 매납사례」, 『청계 정인스님 정년퇴임기념논총, 佛智光照』, 정인스님 정년퇴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018.
洛陽市文物工作隊, 「洛陽唐神會和尙身塔塔基淸理」, 『文物』 1992-3期.
李學勤, 「禪宗早期文物的重要發現」, 『文物』 1992-3期.

【Abstract】

The Types and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Metal Crafts excavated from Silla Buddhist Temple

Lee, Yong-Jin*

From the time Buddhism was recognized in Silla, more than 500 temples were built in the capital and provinces of Silla until 935. The numerous metal crafts had been produced and used numerous necessary for ceremonies and daily lif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more than 500 temples were built during the Silla period(BCE 57-CE 935), a very small amount of metal crafts are excavated from the Silla temple site, but they can be classified into implements for offerings, Buddhist musical instruments, decorative utensils, daily necessities, and seals depending on the purpose.

There are incense burners, kundika (water ewer), and candle stick in the implements for offerings. Buddhist acoustic instruments included Buddhist gong, The decorative utensils included gilt-bronze openwork ornaments, flagpole, dragon and phoenix ornaments. Daily necessities included locks, bronze vessels, and hangers. Bronze seal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temple were also excavated.

Most of the metal crafts excavated from the temple sites of Silla belong to the m the middle period or late period, and they gradually spread from the capital to the provinces. This is because more Silla temples were built in the provinces than in the capital as they went from the middle period to the late period, and many of them were produced in the 8th to 9th centuries.

The implements for offerings including incense burners with having lion weightand kundikas were excavated around the province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Southern school of Zen, and it was found that they spread from the provinces to the capital. The decorative utensils are spreading from the capitalto the provinces. In particular, the gilt-bronze openwork ornaments were excavated from Anapji to

* Associate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Hwangnyongsa temple site, Inwangdong temple site, and Changnyeong Malheuri temple site. Daily necessities are also spreading from the capital to the provinces, and although the bronze vessels excavated from Anapji, Hwangnyongsa temple, and Inwangdong temple site are similar in appearance to those excavated from Pyeongsan, Hwanghae-do and Busosan, Buyeo-gun.

Keywords: Buddhist Temples of Silla dynasty,Capital of Silla dynasty, Metal Crafts, Implements for Offerings, Buddhist Acoustic Instruments, Decorateive utensils, Daily necessities.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0.